삼광사, 21세기 문화 불교역할 고찰한다

12월 24~25일, 개산 51주년 학술대회 개최

천태종 삼대지표운동 주제
미래 포교방향 모색의 자리
"개산 의미 되새기는 시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천태종 삼광사는 12월 24일~25일 경내 지관전에서 '삼광사 개산전법 51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화가 삶을 결정한다. 21세기 문화융성의 시대에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불교의 역할을 고찰하고 천태종 삼광사 개산 후 51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가 12월 24~25일 경내 지관전에서 '삼광사 개산전법 51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서는 삼광사 창건 후 도심 전법도량으로 시민들과 함께해온 삼광사의 역사를 고찰하고 새로운 미래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광사 창건 51년을 맞아 기획됐으며 주제는 '21세기 문화융성시대와 불교의 역할'이다. 12월 24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삼광사 개산 50주년과 삼대지표운동'을 주제로 주지 세운 스님이 기조발제 한다.

학술대회 발표는 먼저 '부산불교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삼광사의 역할'을 권기현 위덕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도웅 스님 '부산불교복지에서 삼광사의 역할과 전망' △월도 스님 '천태종 종무행정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조기룡 동국대 교수 '코로나시대,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부산불교 현황을 기반으로' △보덕 스님 '관음염불의 실천행 고찰-한국 천태종 삼대지표를 중심으로' △문무왕 동명대 교수 '삼대지표로 본 가람배치의 구조와 의미-구인사와 삼광사를 중심으로'가 각각 발표 된다. 마지막 총평으로 첫날 학술대회가 정리된다.

12월 25일 발표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첫 발표는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삼대지표와 한국 근대불교 개혁론'이 이어지며 △이철헌 동국대 교수 '수행과 기도중심으로 부산불교를 이끌다 - 재가불자 수행을 중심으로' △광도 스님 '대조사 법어에 나타난 천태사상의 새로운 해석' △이기운 동국대 교수 '삼대지표와 천태법화사상' △김경집 동국대 교수 '대조사의 한국불교 개혁론'이 각각 발표된다.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의 총평이 이어지며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의 폐회사로 학술대회가 마무리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법 활동을 직접 펼친 천태종 스님들이 발표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전법 방법과 필수 조건들을 심도 깊게 나눌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아울러 김명우 동아대 교수, 최연주 동의대 교수, 오지연 동국대 교수, 김영미 동국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등 불교 학자 교수들이 논평해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삼광사는 "천태종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삼광사 역할과 포교방향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며 "삼광사와 부산불교중흥 그리고 삼대지표를 주제로 개산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051)808-7111

영축문화대상 수상자에 김봉렬 총장 등

12월 25일 오전 10시 시상, 상금 각 1000만원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영축문화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은 제8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 일정을 확정했다.

수상자는 학술문화부문에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봉사실천부문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단체), 포교원력부문에는 사단법인 동련(단체)이다.

시상은 오는 12월 25일 오전 10시에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되며 상금은 각 1천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영축문화재단은 신문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후보자 21명이 접수했으며 지난 11월부터 심의위원회의 실사와 심사를 거쳐 3명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학교 총장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30여 년간 불교건축 연구와 사찰건축을 새롭게 설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어려운 지역의료여건에도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님의 자비희사정신을 널리 펼쳐 수상했다.

사단법인 동련은 34년간 전국 어린이 청소년불자 포교를 위해 포교자료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체계적인 여름불교학교 및 법회 관리, 어린이 지도자 연수, 소식지 발간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현문 스님은 "불교계에 뛰어난 활동을 보여주는 분이 많았다. 모두 선정하지 못했지만 활동가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이제 영축문화대상이 지역불교계를 대표하는 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 많은 일꾼들을 발굴하여 맑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축문화대상은 근대 통도사 중흥조인 구하당 천보 스님(1872~1965)과 대한불교조계종 9대 종정과 통도사 초대방장을 지낸 노천당 월하 스님(1915~2003)의 자비희생정신과 생명존중사상을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자 자비심 확대 통해 코로나 극복을"

불교법왕청·국제불교지도자協 제 1회 평화 봉사대상 개최해

목탁스님 "행동하는 불제자 되자"
자비나눔, 이타행 장려 차원 제정
김동주의원 등 2백명 수상자 선정


김동주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前국회의원, 사진 왼쪽 세번째)이 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세계불교법왕청과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12월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제1회 세계 붓다자비 평화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수상자만 참가한 시상식에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목탁 스님을 비롯해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우꾸마라 사야도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법광 스님과 조향 스님, 보광 스님을 비롯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前 국회부의장, 김동주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 등 모두 200명이 평화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이자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총재인 목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에 선정되신 수상자에게 감사하다. 돕는 일엔 먼저 앞장서고 나보다 남들을 칭찬받게 하자.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되는 인연으로 맺어진다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행동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목탁 스님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 없다, 짜증이나 싫다를 생각하면 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좋든 싫든 열매를 내가 걷어야 한다"며 "가슴으로 행동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참다운 중생이 되자"고 당부했다.

세계불교법왕청 우꾸마라 스님은 "지금 온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암흑의 시기"라며 "이런 때 나의 자유와 권리만을 내세우지 말고 사무량심의 정신으로 남을 먼저 배려한다면 고통도 줄고, 병마에서 벗어나는 일까지도 빠른 쾌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계붓다평화봉사상 대회장인 혜정 스님은 "이타정신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이는 우리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이 추구하는 슬로건"이라며 "감사의 마음으로 회향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봉사자가 하나 되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고 당부했다.

수상을 겸해 참석한 황운하 국회의원은 "만해 스님은 세계평화 열쇠로 조선민족자결을 꿈꾸었고, 달라이라마는 비폭력으로 자치를 얻는 꿈을 꾸었다.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살아있는 보현보살 화신을 찾는 일은 매우 가치가 있다. 불교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자"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봉사대상을 수상한 김동주 헌정회 부회장(前 국회의원)도 "한국사회 분열에서 화합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런 움직임에 봉사하는 이들의 존재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자리할 것"이라며 "부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실천된다면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스님과 대상 수상자 등을 중심으로 소수만 식장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봉사상 수상자들은 소독문을 통한 입장을 거치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울산불교환경연대, 사회 응원의 쌀 전달

'제1회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비의 쌀 나눔' 개최

울산불교환경연대가 시민 사회 활동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며 응원의 의미를 담은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불교NGO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는 12월 11일 울산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제1회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쌀은 총 680kg이며 채식평화연대, 유기견 센터, 더불어숲 작은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등 시민단체 13곳에 각 40kg 씩 전달됐다. 쌀은 여여선원, 정토사, 백련사, 내원암 등 4곳에서 후원했다. 아울러 자비 쌀로 만든 떡국 판매 수익금 일부를 유기견 센터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활동가를 위한 자비의 쌀 전달은 오직 공익 활동가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밝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활동가들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는 행사로 의미가 깊다.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비의 쌀 나눔을 통해 격려를 이어 갈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공동대표 벽선사 혜진 스님, 감사 법왕사 혜경 스님외 각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10여 명이 동참했다.



불교NGO 울산불교환경연대는 12월 11일 울산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제1회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소외되어 어둡고 외로운 곳, 정의가 필요한 곳에 희망이 되고 꽃이 되어 세상을 밝혀주신 시민활동가들의 실천과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비의 쌀을 나누게 되었다"며 "자연과 사람의 노고가 가득 담긴 소중한 쌀을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물심양면으로 위로가 필요한 곳이 많아져서 활동가들은 할 일이 많다. 배고픈 곳엔 밥이 되어 주시고 어두운 곳엔 등불이 되어 이 사회를 향기롭게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참된 회향 참구를"…양진선사 좌탈입망

12월 12일 통도사서 다비식 엄수

'문을 열면 문을 닫을 줄 알라'

통도사 양진선사가 짧은 임종게를 남기고 12월 10일 오전 10시 좌탈입망(坐脫入亡)했다. 문을 여는 것이 태어남이라면 닫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죽음도 여여(如如)하게 맞으며 참된 회향을 참구할 것을 당부하고 양진선사가 홀연히 사바세계를 떠났다.

통도사 한주 재관당 양진 선사의 다비식이 12월 12일 통도사에서 엄수됐다.

통도사 송수정에서 노재를 봉행한 후 연화대로 스님의 법구는 이운됐으며 다비의식이 진행됐다.

통도사 스님들은 스님의 영전에 헌화, 헌향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양진선사는 말 그대로 한주(소임을 맡지 않고 수행하는 스님)이다. 상좌도 두지 않았고 통도사에서 40년 동안 조용히 수행 정진했다. 하지만 양진 스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스님들은 바른 회향을 일러주는 삶,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은 "스님은 나눔으로 회향하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소박한 삶으로 수행의 지표가 되셨다"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양미를 들고 오셨고 수좌 스님들의 정진을 위해 보시금을 일체 회향했다"고 말했다.


통도사 양진선사가 짧은 임종게를 남기고 12월 10일 오전 10시 좌탈입망했다. 다비식은 12월 12일 통도사에서 엄수됐다.

양진 스님은 받은 한주 소임비와 보시금은 동안거와 하안거 마다 선방 수좌 스님들의 대중공양으로 회향했다. 임종 전에 마지막 남긴 당부도 "통장에 흑여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선원 대중공양으로 사용해 줄 것"이였다.

이뿐 아니라 은사 스님이 남긴 유품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을 통도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은 2012년 2월 22일 보물 1747호로 지정됐다.

스님은 12월 10일 오전 10시 좌탈입망했으며 법랍 64세, 세납 83세이다. 스님의 49재는 통도사 명부전에서 매주 수요일 봉행 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북 영산작법보존회, 영산재 시연

어산, 작법, 지화 등 불교무형문화재 발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가 불교전통무형문화재인 어산과 작법, 지화를 소개하는 영산재 공연을 진행했다. 12월 10일 '나의 전설 우리의 전설'이라는 주제로 전주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열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시연공연은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해 비대면 영상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영산재 시연에는 전라북도 영산작법보존회의 범패(어산) 어장인 혜정 스님(전주 동고사)과 이수자 법정 스님(익산 삼불암)이 청아하고 깊은 어산 범음 소리를 선보였다.

또 어장의 범패소리에 맞추어 아름다운 착복의 소매 자락을 휘감는 춤사위는 전주의 전설로 아름다움을 자아내었다.



'나의 전설 우리의 전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문화재 시연회 중 작법무를 선보이는 장면,

특히 작법보유자인 영산 스님(익산 태봉사)은 마치 나비가 춤을 추는 듯한 착각에 빠진 듯 환상적인 작법무를 선보였다.

이밖에 작법 이수자 스님들은 각 분야별 시연을 통해 전통의 맥을 이어온 불교전통 영산재의 춤사위로 내 보였으며, 4바라 법진(익산 태봉사), 법성(익산 태봉사), 지오(익산 대인사), 보위(군산 성흥사)스님들의 수제자들이 마음껏 천수바라를 선보였다.

현진(전주 천지사), 현담(익산 정각사), 서경(전주 백련암)스님의 3작법 무에서는 산중 깊은 호수에 잉어가 물위에서 노닐 듯 살아 숨쉬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50년 넘게 갈고 닦아 지화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전라북도 영산작법 보존회 지화장 도홍 스님은 보상게 2점, 돈(금,은)전 2점, 공연장 좌우로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국화꽃 1점, 하트 1점, 2m 각종 전주한지 꽃 50여 종의 꽃으로 된 장엄 꽃단 6점 등으로 장엄하여 영산재의 시연이 더욱 빛을 내며 전통의 범패, 작법, 지화가 어우러지는 시연이 되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는 범패와 작법위주의 영산재 속에 지화 장엄, 수륙재, 생전예수재, 점안의식 등 분야별로 전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불교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기존의 범패와 어산뿐만 아니라 지화장엄, 불단장엄, 복장의식 등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지사장